



가정예배

2025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즐거운 설 명절 되세요

성경봉독

갈라디아서 6:1-5

다 함께

1.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 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피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2.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3.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4.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피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 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5.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말씀

짐을 서로 지는 우리

다 함께

순서지 마지막 부분의 내용을 함께 읽습니다

찬송

찬송가 559장

다 함께

1. 사철에 봄바람 불어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잇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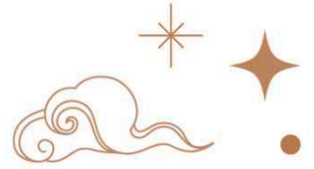
주기도

다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배 후 가족들과 함께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짐을 서로 지는 우리 갈라디아서 6:1-5



설날을 맞아 온 가족이 모여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마냥 즐거운 명절을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작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상치 못한 고통의 소식이 많았습니다. 나를 비롯해 주변 가족과 이웃들이 어려운 일을 당해 힘든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건강을 잃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딪히며,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할 일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러한 상황에서 나와 이웃을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자신을 먼저 살피어야 합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6:5) 자기 일을 스스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짐을 누군가 지어 주겠지, 하는 생각에 나태하거나 불성실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자신을 살피고, 자기 짐을 지려는 태도와 행동이 선행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고, 가족과 이웃의 도움도 있는 것입니다.

둘째, 온유한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 주고”(6:1) 꼭 죄가 아니라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세보다 온유한 마음으로 공감하고 격려하며 다가가야 합니다. 약한 모습은 약한 대로, 온유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셋째, 짐을 서로 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6:2) 건강을 잃고, 낙심하고, 경제적 곤란에 처해서,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졌을 때, 공감의 자세, 격려의 말, 기도도 필요하지만, 실제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작은 것이 라도 돕는 것이 짐을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6:7) 누군가 어려울 때 사랑과 섬김을 심으면, 내가 어려울 때 사랑과 섬김을 거두게 됩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6:8) 이기적인 대가를 생각하며 행하는 것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는 삶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사랑으로 짐을 서로 지어 영생을 얻는 길로 나아가시길 소원합니다.